

“장애·비장애 넘어 나눔 실천”

포교원, 장애인전법단 출범식

“자비·지혜 나누는 도반될 것”

“깨달음을 이룬 부처님이 되지 못한 우리는 모두 ‘장애인’입니다.”

장애인포교의 원력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조계종 장애인전법단이 첫 걸음을 내딛는 자리에서 포교원장 혜총스님이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 동체일심(同體一心)으로 정진할 것을 당부했다. 장애인전법단 출범은 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성과 쇄신 5대 결사’ 가운데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 결사’의 구체적인 실천이기도 하다.

조계종 포교원은 지난 22일 서울 조계사에서 사부대중 3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장애인전법단 출범식을 성대하게 거행했다. 이날 출범식은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눈높이에 맞추고 배려하는 행사로 주목을 받았다.

맹인 안내견(犬)이 대웅전에 들어오고, 진행 상황을 수화로 통역한 것은 물론 포교원장 스님이 장애인지원단원들의 자리를 직접 찾아다니며 위촉장을 수여했다.

장애인전법단장 지거스님(서울영등포장애인복지관장)은 출범사를 통해 “장애인전법단이 출범하게 된 것은 시대적 요구이자 불가적 사명이라 아니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 장애인들을 직접 찾아가 함께하는 친구가 되어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지거스님은 “법을 찾는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보듬어주

며 자비와 지혜의 불교적 가치가 이 땅위에 실현되도록 정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장애인신행단체인 보리수 아래 회원인 이경남 시인은 “거칠고 매마른 땅위에 불편하고 떨리는 손 모아 보리심, 까만 씨앗 하나 정성스럽게 심었다”면서 “두 손 가득 담긴 희망의 그날, 부처님의 미소 가득한 온누리에 보리의 열매를 맺는 그 날을 위해”라는 내용의 축시를 낭독해 박수를 받았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장애인전법단 총무 해성스님(연화원 대표이사)의 출범경과 및 활동계획 보고에 이어

포교원장 혜총스님이 전법단 지도법사와 지원단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포교원장 혜총스님은 법문을 통해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 비록 몸이 불편하지만 누구나 평등한 마음을 중심으로 공부하는데 최선을 다해달라”면서 “신구의(身口意)를 바르게 하여 ‘부처님 자리’에 이르도록 노력하자”고 설했다.

포교원장 혜총스님의 법문이 끝난 뒤에는 조계사 원심회원 10여명이 축하공연으로 ‘보현행원’을 수화로 노래했다. 이동한 장애인전법지원단원(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포교원장 스님과

포교원의 원력으로 장애인전법단이 출범하게 된 것을 축하한다”면서 “앞으로 종단차원에서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이날 출범식은 장애인전법단지도법사 도륜스님(영주장애인복지관장)의 선창으로 전도선언을 합송한 후 대웅전 앞에서 기념촬영을 끝으로 회향했다.

장애인전법단은 기존 장애인신행단체인 원심회, 보리수아래, 아나올회, 대광명인불자회, 해광명인불자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장애인포교의 새장을 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출범식에서 장애인전법단장 지거스님과 이동한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장은 “올 가을 또는 겨울에 제주도에서 ‘합동성지순례 및 수련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약속해 동참 대중의 환호와 박수를 받았다.

한편 장애인전법단장 지거스님은 행사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나눔의 정신이 ‘보시공덕’이며 이런 동행의 정신이 ‘자비실천’으로, 이 평범하면서도 위대한 가르침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로 ‘상생의 진리’임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각계각층의 사부대중들께서 우리 장애인전법단과 장애인 불자님들께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장애인전법단 출범식이 끝난 후 동참대중이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기념 촬영을 했다.

“간화선 세계화에 도움 되길...”

수불스님, 東大 국제선센터 건립기금 50억 쾌척

종립대학인 동국대가 간화선 수행법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지도할 국제선센터 설립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안국선원장 수불스님(불교신문 사장)이 국제선센터 건립기금 50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수불스님은 지난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하고, 동국대 제2건학기금 약 정액의 일부인 20억 원을 아름다운 동행에 전달했다.

동국대 서울캠퍼스에 들어설 국

제선센터는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도 간화선 수행법을 배우고 불교를 공부할 수 있는 도심의 포교도량이다. 이는 동국대가 올해 초에 발표한 제2건학을 위한 리스타트프로젝트(RE-START Project) 가운데 제1과제인 건학이념 구현 사업의 일환이기도 하다. 김희욱 동국대 총장은 올 초 취임과 함께 건학이념인 부처님 가르침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겠다는 취지에서 국제선센터 건립을 계획하고, 간화선을 실천할 수 있는 교육도량으로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현재 학교 측에서는 서울캠퍼스 인근에 국제선센터가 들어설 부지 매입을 추진 중이며,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수불스님은 “수행자로서 종립학교인 동국대에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수행법인 간화선을 직접 실천하고, 지도해주는 시설이 없다는 사실이 늘 안타까웠다”며 “최근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간화선법을 공부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국제선센터 건립을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간화선 세계화와 대중화를 위해 큰 뜻을 내쉬 고맙다”며 “안국선원장 수

불스님과 신도들의 후원이 계기가 돼 많은 불자들과 스님들이 종단은 물론 종립학교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안국선원의 후원으로 국제선센터 건립이 가시화되면서, 동국대는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동국대 관계자는 “수불스님의 후원으로 국제선센터가 성공적으로 건립되면 종립대학인 동국대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한국불교를 널리 알리고 간화선 수행법 보급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종립대학에서 간화선 수행을 학문적으로 체계화하고 이를 지도한다면, 간화선 세계화가 한층 더 빨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동국대는 오는 31일 오후6시30분 서울 장충동 엠베서더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2건학기금 마련을 위한 모금행사를 개최한다.

어현경 기자 eonaido@ibulgyo.com



지난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총무원을 대상으로 한 대중공사를 열었다.

신재호 기자 air501@ibulgyo.com

‘자성과 쇄신 결사’ 대중공사 개최

조계종이 민족문화 수호 활동에 이어 자성과 쇄신을 위한 결사를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총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5대 결사의 진행방향과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대중공사가 열렸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총무원을 대상으로 한 대중공사를 열고, 민족문화 수호와 자성과 쇄신을 위한 결사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중앙총무기관 및 유관기관의 교역적 총무원과 차임장급 일반직 총무원 80여 명이 참가한 불교 고유의 의결기구인 ‘대중공사(大衆公事)’를

중앙총무기관 및 유관기관
80여명 동참해 6시간동안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 수렴

통해 자성과 쇄신을 위한 5대 결사의 나아가야 할 방향과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허심탄화하게 논하며 의견을 청취했다.

총무원장 스님이 차임장급 이상 총무원을 대상으로 대중공사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것이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또한 참가 대중은 자성과 쇄신을 위한 5대 결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피력했다. 특히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일정 조정을 통해

2차례의 자비나눔기금 전달식을 제외하고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5시10분까지 진행된 대중공사 전 과정을 함께하며 폭넓게 의견을 수렴했다.

총무원은 이번 대중공사를 통해 수립된 자성과 쇄신을 위한 결사의 방향과 실천방안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실현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국민과 함께하는 불교로 거듭나겠다는 방침이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이날 5대 결사에 대한 총무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것을 토대로 오는 6월1일 전체 총무원 회의를 통해 5대 결사에 대한 향후 방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박인택 기자 parkintak@ibulgyo.com

社告

탈북주민(새터민)에게 이불을 지원합시다

불교신문(사장 수불스님)과 안성 칠장사(주지 지강스님)가 공동으로 탈북자들의 정착을 위한 사업을 전개합니다. 매일 250여명의 탈북주민이 정착교육을 받은 하나원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이들에게 따뜻한 이불을 지원해 부처님의 자비심을 전합니다. 민족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거룩한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주 최: 안성 칠장사 · 불교신문사
- 주 관: 안성 칠장사
- 후원계좌: 농협: 351-0303-0852-33 (이불 1채 2만4000원)
- 예금주: 칠장사
- 연락처: (031)673-0776

불교신문사



‘자성과 쇄신 결사’ 조계종 신도등록이 그 첫걸음입니다

- ◎ 신도등록은 종단과 불교의 힘을 키우는 불사입니다.
- ◎ 불자라면 누구나 재적사찰에서 신도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 ◎ 조계종 신도등록! 불자로서의 자긍심과 함께 다양한 혜택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